

시티프로젝트(유)

본평가
평가일: 2018.03.30

유동화기업어음 신용등급

구분	발행금액(한도)	발행(예정)일	만기(예정)일	신용등급
제4회차 ABCP	50억원	2018.03.30	2019.01.29	A1(sf)

Analyst

신윤섭 책임연구원	02) 6966-2459	yoosub.shin@scri.co.kr
김준섭 수석연구원	02) 6966-2457	junseop.kim@scri.co.kr
박민식 실장	02) 6966-2461	mspark@scri.co.kr

거래참가자

거래유형	PF 대출채권 유동화
자산보유자	-
업무수탁자	케이비증권(주)
자산관리자	케이비증권(주)
매입약정기관	케이비증권(주)
신용보강기관	목포시
법률자문기관	법무법인퍼스트
주관회사	케이비증권(주)

주)정보제공자: 주관회사

유동화자산

유동화자산	대출채권 및 부수 권리
차주	목포해상케이블카(주)
대출채권 원금	Tranche B 50억원
대출실행일	2018.03.30
대출만기일	2019.01.29
이자기간	2018.03.30~2019.01.29
이자지급	이자기간 초일 선급
원금상환	만기일시상환

평가의견

서울신용평가(주)는 시티프로젝트(유)(이하 'SPC')가 발행할 제4회차 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의 신용 등급을 A1(sf)로 평가하며, 주요 평가요인은 다음과 같다.

- 목포시의 대출원리금 손해배상 의무와 신용도
-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인 케이비증권(주)의 신용도

유동화 개요

본 유동화는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이하 '차주')와 SPC간에 2017.1.26일 체결된 사업 및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에 의거한 대출약정금 468억원(Tranche A 418억원, Tranche B 50억원) 중 Tranche B 50억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SPC가 제4회차 ABCP를 발행하고, 향후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등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과 유동화기간 중 차환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통해 본 건 ABCP를 상환하는 구조이다.

한편, 차주는 목포시 유달산 및 고하도 일원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시행사이며 새천년종합건설(주) 등이 차주의 주주로서 본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유동화자산

본 건의 유동화자산은 대출약정서에 의한 대출약정금 468억원(Tranche A 418억원, Tranche B 50억원) 중 Tranche B 50억원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으로, 대출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조건이다. 대출이자 이자기간 초일에 선급되며, 본 건 대출의 이자기간은 2018.3.30일부터 대출만기일까지 이다. 기 지급된 이자는 어떠한 사유에도 반환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차주는 대출금에 대한 향후 12개월+1일 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이자유보계좌에 예치하게 된다. 이외 차주는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 및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차주 발행 주식 및 대출원리금상환계좌에 관한 예치금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SPC를 1순위 근질권자로 설정하였다.

SPC가 본 건 유동화와 관련하여 기 발행한 ABCP 내역은 다음과 같다.

[SPC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기초자산		관련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구분	대출한도	종류	회차	신용등급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일
Tranche A	418억원	ABCP	제3회차	A1(sf)	418억원	2018.01.30	2019.01.29
Tranche B	50억원	-	-	-	-	-	-
합계	468억원	-	-	-	418억원	-	-

주: 신용등급은 당사 부여등급 기준

주요 위험요인과 통제방안

본 유동화와 관련하여 검토된 주요 위험요인은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 SPC의 유동성 위험 등이다.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은 차주가 대출채권 원리금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해 ABCP 적시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 차주의 신용도와 본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면 적시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는 목포시의 대출 원리금 손해배상 의무로 통제된다. 목포시는 차주의 부도 등으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까지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고 대체시행자로 하여금 대출약정에 대한 재약정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목포시는 잔존재산의 처분 등을 통하여 12개월+1일째 되는 날 SPC에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 하도록 되어있다.

본 유동화에서 차주가 대출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 SPC는 기발행 ABCP의 상환을 위하여 대출만기일에 만기가 12개월+1일인 ABCP를 차환발행할 예정으로, SPC가 차환발행하는 ABCP의 시장 미매각 등의 차환발행위험이 존재한다. 동 위험은 SPC가 발행하는 ABCP에 대한 케이비증권주의 매입보장으로 통제된다. 매입보장약정서에 따르면 케이비증권주는 SPC가 발행하는 ABCP 중 시장 미매각 분 및 상기 요인 등으로 인해 발행되는 만기 12개월+1일의 ABCP의 매입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SPC의 유동성위험은 대출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이다. 이에 차주는

원천징수액 등에 해당하는 금원을 후순위대여하게 되며, 차주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되는 점을 감안하면 SPC의 유동성위험은 적절히 통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위험요소들과 이에 대한 통제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본 ABCP의 신용등급은 대출 원리금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목포시의 신용도 및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인 케이비증권(주)의 신용도에 연계되어 있으며, 목포시와 케이비증권(주)의 신용도는 본 ABCP의 등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본 평가는 서울신용평가(주)가 공시한 SF신용평가 일반론을 적용하였고, 기타 신용평가방법론도 참고하였습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서울신용평가(주)의 홈페이지 www.scri.co.kr의 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유동화회사 관련서류, 유동화자산 자료, 유동화관련 계약서, 기타 주관회사에서 제공한 자료 등입니다.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 시 거래참가자 주석에 표기된 정보제공자로부터 자료를 수령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단기채무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정의
A1(sf)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음.
A2(sf)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sf)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sf)	적기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sf)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그 안정성에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sf)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투기적 요소가 강함.
D(sf)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주1: 상기 등급 중 A2(sf)등급에서 B(sf)등급까지는 당해 등급에서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가 부가될 수 있음.

주2: 상기 등급 중 A1(sf)등급에서 A3(sf)등급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sf), C(sf) 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 및 계약체결일은 2018년 3월 26일이고, 평가완료일은 2018년 3월 30일입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건수 및 수수료총액은 각각 3건, 2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0건, 0백만원이며,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비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서울신용평가(주)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시장가치 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하여 예측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측 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평가의견 및 간행물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간행물 등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신용평가서, 평가의견, 간행물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각종 공시자료 등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분석자, 분석도구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시에 활용되었거나 본 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며,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서울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 재판매 또는 유포될 수 없습니다.